GWANGJU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D-30

“북측 선수·응원·예술단 파견해 주세요”

81개 광주 시민단체
北 체육성에 참가 요청 서신
“광주서 남북 하나되길 기대”

광주시민사회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 파견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 대회 참가를 거듭 요청하기로 했다.

11일 (사)광주시남북교류협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81개 광주 시민단체는 12일 북측 체육성에 대회 참가를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한다.

광주시민단체들은 ‘북측 체육성에 드리는 요청서’에서 “지난 2006년 광주에서는 ‘6·15공동선언 기념 남북공동행사가’ 개최됐다”며 “2006년에 그랬던 것처럼, 2019 광주수영선수권대회에 북측의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이 오시길 광주 시민의 이름으로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단체는 “한반도 평화의 길에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놓여있다”며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이 그랬듯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남북의 화합과 통일을 여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과 북은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됐다. 남북 공동입장, 남북 단일팀 구성이라는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며 북측의 평창 올림픽 참가가 가져온 성과를 되짚었다.

남북이 하나돼 응원하는 모습에서 하나된 남북을 볼 수 있었고, 북측의 삼지연 관현악단과 남측 가수의 합동 공연은 남북의 화합을 보여줬다는 것을 일깨운 것이다.

단체는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는 한반도가 분단의 아픔을 넘어 평화의 촛불로 살아났고, 평화의 촛불은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면서 “비록 현재는 한반도 평화의 촛불이 들불처럼 번지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우리는 해날 것이다. 남과 북의 힘과 지혜를 다시 한 번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에서 다시 한 번 남북의 선수단이 함께 입장하고, 남북이 하나 되어 응원하길 기대한다. 남북 예술단의 합동공연을 통해 신명나는 평화의 축제가 열리길 간절히 원한다”며 “북측의 참여 속에서 평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수영선수권대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거듭 대회 참가를 요청했다.

광주시남북교류협의회 관계자는 “2018년 평창올림픽을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봄을 알렸다면, 올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북측 참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외국인 119신고 통역도우미가 도와드려요”…14개 언어 57명 운영

3자간 통화하면 동시통역 지원
광주시 소방본부 위촉·간담회

“세계수영대회 기간, 외국인 119신고 통역도우미가 도와드려요”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외국인들의 119신고를 돕기 위해 ‘외국어 3자 통역도우미’를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사고 등 긴급 상황과 맞닥뜨린 외국인은 119로 전화를 걸면, 광주소방본부 상황실·신고자(외국인)·외국어통역도우미 이렇게 3명이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동시통역이 가능해진다.

외국어 3자 통역 도우미는 현재 10개 언어권 35명이 등록돼 활동하고 있다.

도우미들은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국제행사 또는 여행으로 광주를 찾은 외국인들이 언어 장애 없이 119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수영대회와 마스터즈대회 기간 외국인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외국어 3자 통역도우미 규모를 확대했다. 기존 10개 언어 35명이던 것을 스페인어·태국어·우즈베크어·캄보디아어 등 4개 언어 22명을 추가, 총 14개 언어 57명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외국어 3자 통역도우미는 대회 기간 개·폐막식장, 선수촌 등에서 현장 안내와 119 통역업무도 지원한다. 대회 종료 후에도 계속 운영된다.

지난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어 3자 통역도우미 위촉식 및 간담회’에는 14개 언어권 3자 통역도우미 40여 명과 소방공무원 20여명이 참여해 대회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 <사진>

참석자들은 그동안 접수된 외국인 119신고 사례를 검토하고, 대회기간 119상황관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고 받았다.

황기석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 기간 광주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불편없이 안전하게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19 상황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세계수영대회 앞두고
광주 시내버스 1002대
안전·청결상태 점검

광주시는 12일부터 27일까지 시내버스 1002대에 대해 안전 및 청결검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점검하는 것이다.

광주시와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이 7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진행한다. 시내버스 차고지 등에서 차량기기 작동 상태, 안전장비 비치 여부, 차량 내부 손잡이 위치의 적정성과 고정 여부, 하차벨 위치 및 청결상태 등을 살핀다. 여름철 에어컨 작동 및 냄새 유무, 엔진룸 청소 여부, 재생타이어 사용 유무, 타이어 파손, 외부 도색 불량도 본다. 비상탈출용 망치와 소화기 상태, 저상버스 경사판, 교통약자 전용벨, 휠체어 안전벨트 작동도 점검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복지사각 이웃돕기 후원자 발굴 캠페인 광주시 서구 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지난 10일 양동시장에서 복지사각지대 이웃과 후원자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북구서 가장 비싼 땅은 전남대 후문 일대

㎡당 540만원…29만원 올라
구 개별공시지가 7.38% 상승

광주시 북구 지역 가장 비싼 땅은 용봉동 전남대 후문 인근으로 나타났다.

북구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북구의 올해 개별토지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7.38% 상승했다. 상승요인으로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일부 지역 토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북구 지역 최고지가를 나타낸 용봉동 전남대 후문 인근에 소재한 토지는 지난해보다 29만원이 오른 ㎡당 540만원이며, 최저지가로 조사된 화암동 소재의 토지는 ㎡당 826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총 8만 5529필지(사유지 6만 9492필지, 국·공유지 1만 6037필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전체 공시대상 개별토지 8만 5529필지 중 지난해대비 가격이 오른 곳은 8만 2468필지(96.4%), 내려간곳은 675필지(0.8%), 나머지 2386필지(2.8%)는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필지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7월 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행정복지센터나 북구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토지는 재검증과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말 조정·공시된다. 문의 062-410-6250~6251.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남구 양림동에 ‘버들숲 주민어울림 센터’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
7억5000만원 들여 내년 완공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 ‘버들숲 주민어울림 센터’가 조성된다.

남구는 “양림동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하나인 버들숲 주민어울림 센터를 공공부지에 새롭게 짓는다”고 11일 밝혔다.

기독간호대 인근 카페 밀집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버들숲 주민어울림 센터는 총 7억5000만원 사업비가 투입돼 지상 3층에 연면적 327㎡ 크기로 지어진다.

센터 1층에는 주민 공동 작업장이 들어서며, 2층에는 마을 사랑방, 3층에는 양림동 근대역사문화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마을 박물관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센터 내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남구는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중 공사에 착수,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버들숲 주민어울림 센터가 완공되면 이곳 센터는 양림동 지역 주민들의 문화 사랑방 뿐만 아니라 생활 거점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양림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G.O.Auction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부동산 추천 물건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가치좋음.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병원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매 추천 물건

공장 광주 북구 연제동 건물 : 2484.32㎡(751.5평) 지상2층 건물만매각.
감정가 : 40억5천만원 최저가 : (15%) 5억9천5백만원 (토지 임대가능)
공장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토지 : 3769㎡(1137.1평) 건물 : 2040.5㎡(617.3평)
지상1층 **감정가 : 14억8천8백만원 최저가 : (56%) 8억3천3백5십만원**
공장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토지 : 3305.7㎡(1000평) 건물 : 492㎡(148.8평)
지상2층 **감정가 : 7억8백4십만원 최저가 : (70%) 4억9천5백9십만원**
의료시설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 토지 : 11139㎡(3369.5평) 건물 : 5530.56㎡(1612.5평)
감정가 : 40억3천만원 최저가 : (56%) 22억6천만원
의료시설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70%) 10억1천7백4십만원**
근린주택 목포시 옥암동 토지 : 555.7㎡(168.1평) 건물 : 1210.35㎡(366.1평)
지상4층 **감정가 : 15억9천8백만원 최저가 : (70%) 11억1천8백5십만원**
임야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토지 : 12900㎡(3902.3평)
감정가 : 1억9천3백5십만원 최저가 : (45%) 8천6백7십만원

"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